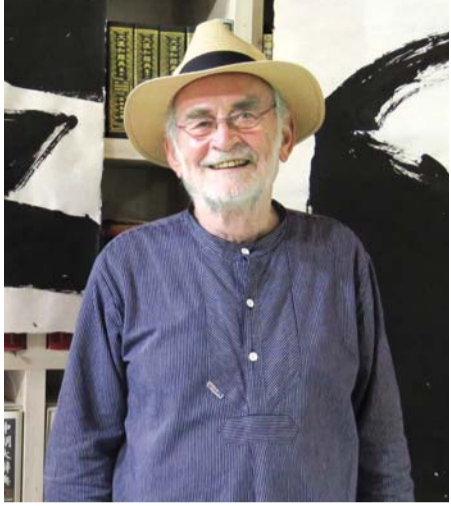


“한지에 그린 수묵화... 저마다 느낌으로 감상”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베르너 샷세’ 전 여는 한국학 학자 샷세 인터뷰



20년 그린 작품 60점 전시
6월1일~24일 하정웅미술관

1966년 호남비료서 한국과 인연
무용가 홍신자와 결혼 담양 정착
“마음 편해지기 위해 그림 그려
문화·역사 관심 적은 한국인 아쉬워”



한국학 학자이자 화가 베르너 샷세(Werner Sasse·1927~) 집은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달맞이꽃, 개망초 등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공간은 그가 기술자와 함께 설계하고 지은 스튜디오이자 살림집이다. 한지 문자가 쌓여있는 한쪽은 그림을 그리는 공간, 책상이 놓인 곳은 공부하고 책을 쓰는 공간이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중세국어지음연구’ 등 책장에 빼곡이 꽂힌 책과 1968년부터 그와 함께 한 ‘달마도’가 눈에 띈다. 그는 최근 ‘동국세기’ 번역 작업을 마쳤다.

그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초청으로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베르너 샷세’(6월1일~24일)전을 연다. 하정웅미술관이 국내외의 디아스포라 작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샷세는 2006년 한국에 정착한 후 작업한 수묵화 등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1일 오후 5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세계적 무용가인 아내 홍신자(77)씨와 드로잉 퍼포먼스 ‘어둠에서 빛으로’도 펼친다

집에서 자란 야생 딸기와 홍씨가 내려준 커피를 앞에두고, 전시회로 시작된 인터뷰는 한국 고전 번역, 한국과의 인연, 세상사는 이야기 등으로 흥미롭게 이어졌다. 그는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고 유머가 풍부한 사람 이어서 인터뷰는 시종일관 유쾌했다.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샷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1966년이다. 나주 호남비료공장 기술·외국어 교사를 거쳐 여수, 전북 이리에서 강사생활을 했다. 1970년 독일로 돌아간 그는 보훔대 아시아문화센터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1975년 한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독일인 첫 한국학 박사다. 그는 독일 한국학과 개설에도 적극 나서 1988년 보훔대에, 1992년 함부르크 대학에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교수로 재직했으며 유럽한국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06년 한국에 정착한다. 이듬해 전남대 5·18연구소 객원교수를 지냈고 2008~2011년까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퇴직하면서 어디서 살까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공부와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은 어디에서나 그릴 수 있고, 한국학은 한국에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전문기도 있고, 도서관도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2 때 프로그래머들과 첫 전시회를 가졌다.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그림으로 먹고 살겠냐”는 아버지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들은 세계적으로 다 바보”라며 웃었다. “아들과 딸들은 다 판 사람인데 아버지는 자기 경험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독일에서 유학, 아크릴화를 그렸던 그는 20

년부터 한지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작들은 먹과 흙, 수채화물감 등을 사용했으며 담대한 수묵 느낌과 여백이 눈길을 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느껴질 때, 고통이 느껴질 때 마음이 편한해지기 위해 그림을 그려요. 작품은 오랫동안 벽에 걸려두고 수시로 고치는 편입니다. 전 성공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 결과는 몰라요.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 그림이죠. 일종의 선(禪) 그림이라고 할까요. 나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번 전시작들의 제목은 모두 ‘무제’예요. 사람은 자기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같은 사람도 그림을 볼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한국 고문 번역에 치중하고 있다. ‘농가월령가’를 독어와 영어로 번역했고 5년여에 걸쳐 ‘동국세기’ 번역을 마쳤다. 앞으로 ‘소쇄원 48경’ 번역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한국하면 경제발달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문화는 현대문화만 있는 줄 알아요. 독일의 경우 고대, 실러를 모르면 독일 문학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백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예요. 우리(한국)도 현대 문학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의 바탕이자 뿌리가 된 전통문화를 아는 게 필요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한국인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역사와 문화에 관심 없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미래로 나가는 것도 뿌리가 없으면 못나가요. 사회 스트레스도 많고, 물질주의도 너무 강해요. 여유도 없구요. 옛날엔 비가 오면 “비가 오신다.” 이랬는데 요즘엔 “날씨가 나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여유없이 공부만 하는 것도 아쉽구요. 다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요. 또 ‘손으로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은 ‘양과 질’을 함께 알아야하는데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나 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슬픈 일이지요.”

창평의 한옥을 비롯해 서울, 제주도, 경기도 안성 등 여러 곳에서 생활한 그는 4년 전 담양에 집을 짓고 정착했다. ‘물초’ 제작으로 유명한 독일인 빈도림씨 옆집이다.

요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농담도 잘하는 유쾌한 그는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시 소개처럼 “어쩌면 저보다 더 한국을 더 사랑하고 많이 아신다” 했더니 전시 제목이 틀렸다고 했다.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이 아니라, 홍신자를 사랑한 독일인”이라면서. 다같이 크게 웃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6월호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인증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재조명

송창 화백의 평화 메시지와 예술세계

지난 4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Global Geopark)으로 인증을 받았다. 무등산의 독특한 지질과 자연 자원, 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모델인 ‘지오 투어리즘’(지질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에서도 특집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재조명하고, 동유럽의 유네스코 문화도시를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40여 년 가까이 분단현실을 화폭에 담은 장성 출신 송창(66) 화백이다. 두 차례에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와 예술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여름이 시작된 6월 첫날 ‘신남도택리지’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양으로 떠난다. 사라질 라벤더 축제와 무더위를 식혀줄 와인동굴, 백운산 끝자락 느랭이골 자연휴양림과 시원한 계곡들, 광양만 야경까지 광양의 매력은 끝이 없다. 문학기행지는 전북 무주 김한태 문학관이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짧은 생이지만 한국 비행사에 한 획을 그은 김한태의 어록과 철학, 문학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휴가시즌이 시작된 만큼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이들도 많다. 지면을 통해 만나볼 곳은 이웃나라 일본이다. ‘책방 별곡’에서는 독서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도쿄의 핫플레이스 츠타야 서점의 서가를 둘러보고, 여행작가 노중훈의 ‘꿈의 여행’은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명주 사계를 맛볼 수 있는 간사이 지방 양조장을 찾아 떠난다.

이외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고명환과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를 기록한 KIA타이거즈 마형 임창용을 만나보고,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양상률 디토’의 6월 공연도 미리 만나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104명의 작가 탐방 ‘글이 된 그림들’ 책 출간

범현이 작가...31~6월6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서 100인 기념전

글이 된 그림들

범현이 작가(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는 지난 2009년부터 매달 한명의 작가를 인터뷰해왔다. 작가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전시회를 관람하고, 작가의 작업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글을 써왔다. 인터뷰는 광주·전남 문화·정보 소지자인 ‘광주아트가이드’에 ‘작가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다. 지난 3월 100호를 발간을 맞은 ‘광주아트가이드’가

기념 사업 일환으로 ‘작가탐방’을 묶은 책 ‘글이 된 그림들’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와 전시회를 갖는다.

책에는 강남구, 김대원, 서미라, 배수민, 신창은, 홍성담 등 모두 104명의 작가 탐방기가 실렸으며 작가별로 3~4점의 작품을 함께 담았다. 범현이 작가는 작업실을 찾아 진행한 인터뷰를 한 편의 에세이처럼 편안하게 써내려갔다.

‘글이 된 그림들’ 기념 전시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책에 소개된 100여명의 작가들이 30호 이내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범현이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6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미술 관련 소설 창작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는 지역을 기반으로 여전히 활동중인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작가탐방’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 인터뷰를 묶어 ‘글이 된 그림들 II’로 묶어내고 싶은 마음이다. 문의 010-2607-86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팔일 주중 오찬 정식
-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대표 맛집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